

결핵의 합병증과 후유증

- 예방법과 치료법 -

김 건 열 / 서울대 의대 내과교수

**결핵으로 인한 여러가지 합병증과 후유증의 증상
이 우리 신체 여러곳에서 발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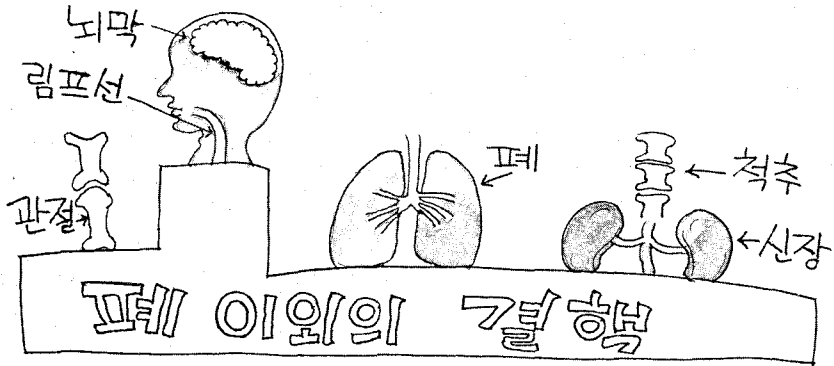
이런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서 그 예방법과 치료법을 사례별로 알아본다(편집자 주)



결핵이라고 하면 우선 폐결핵을 연상하지만 우리신체에 발생하는 결핵은 폐결핵뿐만 아니라 우리신체 모든 장기에 결핵성병변을 일으킬 수가 있어, 결핵은 신체 어느곳에나 생기는 전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호흡기를 통해서 결핵균이 우리 인체에 침입되고 호흡기의 임파선이나 근처의 경부(목부위) 임파선에 결핵증이 잘 발생하여 폐결핵과 결핵성 임파선염 등이 우리 주변에 자주 눈에 띄일뿐이다.

따라서 결핵의 합병증이라고 하면 우선 전신결핵의 일환으로 신체 다른장기에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고 전술한 폐장이나 임파선염 이외에 늑막을 침범하면 결핵성늑막염이 발생되고 혈류를 통해서 결핵균만연이 뇌조직으로 가면 결핵성뇌막염, 대장으로 가면 결핵성대장염, 콩팥으로 가면 신장결핵, 거기서 방광으로 퍼지면 결핵성방광염이 생기고 심지어는 부신피질까지 침범하여 내분비호르몬분비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는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일으켜 저혈압 증을 동반한 무기력한 검은색피부의 「애디슨」씨병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된다. 실로 결핵은 모든 장기를 침범하는 전신질환이고 결핵감염 초기에 빨리 진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안하면 많은 종류의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기게 마련되어있다.

폐결핵의 합병증은 결핵을 앓고 나는 환자의 연령과, 이환시기 기간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 어린이 결핵의 합병증과 후유증

어린이가 앓고나는 초기감염결핵은 대부분 결핵성인파선염의 형태로 앓고나는 경우가 많아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없이 결핵과내반응양성자로 남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간혹 폐문인파선의 비대로가는 기관지가 눌러 눌린 부위말초부에 무기폐(無氣肺)가 생겨 중엽증후군(中葉症候群)이라는 증세를 발생시키는 수도 있으나 어린이의 초기감염결핵은 적절하고 유효한 예방적치료와 조치로서 큰 문제없이 치유되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치료시작이 늦었거나 치료약제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할 때는 소아의 폐결핵이 결핵성뇌막염이나 속립결핵등이 중증의 전신 결핵증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어린이에게는 BCG접종은 물론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실시하여 결핵의 감염여부와 언제 「투베르쿨린」 반응이 양성으로 되었는지

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속립결핵(粟粒結核)이라는것은 폐장을 통해서 인파선이 침입된 결핵균이 더많은 번식후 혈류를 통해서 전신과 폐장전체에 퍼진상태를 의미하고 이 경우는 사망률과 후유증 발생빈도가 높은 아주 중증의 폐결핵이라고 할 수 있다.

결핵성뇌막염도 속립결핵과 같은 전과양식으로 뇌조직에 결핵성병변이 발생된 것으로서, 뇌염, 뇌막염증세를 일으켜 전신쇠약, 발열, 정신혼미 의식장애 및 사지운동장애 및 경변등을 일으킬 수가 있게된다. 결핵성뇌막염은 조기발견하여 원인치료를 앓는 한 신경후유증의 발생빈도가 높아 특히 조기 진단과 충분한 기간의 결핵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다.

(2) 성인결핵의 합병증과 후유증

성인에서의 결핵은 폐결핵인 경우 어린이에서와는 달리 폐장이나 늑막을 침범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주로 좌우측상엽에 잘 발생한다. 또한 늑

막염 형태로 발병하는 경우도 많아 원인이 불명한 늑막염이 생겼을 때는 3~6개월 사이에 폐결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폐결핵은 폐염과 같이 발열증상을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고 또 발열 없이 전신쇠약감이나 식욕부진, 체중감소, 나른한 신체조건등의 비특이증상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 또 기관지결핵의 형태로도 발병하여 천식같은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내시경검사를 필요로 할때도 있다.

성인 폐결핵에서의 합병증과 후유증은 아주 초기에 색출하여 철저히 치료하지 않는 한 많은 종류의 후유증을 남기는 수가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있다.

폐결핵의 후유증과 합병증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므로 폐결핵을 앓고난 이후에도 계속 환자를 주기적으로 진찰하여 이런종류의 후유증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① 폐결핵 초치료 실패에 의한 재발 증상
- ② 기관지확장증
- ③ 폐암의 병발
- ④ 「아스페루지루스」등 진균감염
- ⑤ 폐기종등의 기능장애
- ⑥ 호흡부전증
- ⑦ 기관지결핵에 의한 기도협착증
- ⑧ 늑막유착증
- ⑨ 흉곽변형 및 기형증
- ⑩ 비정형항산균증

① 초치료 실패에 의한 재발증상

폐결핵치료는 6개월~9개월의 장기치

“

약제선택이 잘못된 경우는 치료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내성결핵균감염환자로 이행하게 되어 아주 치료하기가 어려운 환자가 되는 수가 많다.

”

료가 필요한 병이고, 약제선택이 올바르게 된 3가지종류 이상의 복합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따라서 규칙적인 치료를 안하거나, 약제선택이 잘못된 경우는 치료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내성결핵균감염환자로 이행하게 되어 아주 치료하기가 어려운 환자가 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결핵치료의 첫걸음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치료시작시에 올바른 처방을 받아 필요한 기간을 지켜 장기복약을 해야한다는 점이 된다. 치료실패환자의 대부분이 이 두가지 원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당하는 큰 고생이라 할 수 있다.

② 기관지확장증

기관지확장증은 이름 그대로 말초기도의 기관지가 확장되어 늘어나있다는 뜻이고 이는 폐결핵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백일해, 홍역, 어른의 폐염, 폐결핵등을 앓고난후 유발될 수 있는 만성폐질환이다. 이병의 특징은 객담량이 많아서 늘 가래를 뱉고 있는 사람이다. 간혹 혈담(혈액섞인객담)이나 각혈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고 축농증등을 동반하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의 기관지확장증환자

의 1/4은 결핵성원인이고 폐결핵을 앓고 난 상당수의 환자가 결핵균은 음전되어 비활동성이 되어있어도 속발되는 기관지확장증으로 늘 가래를 뱉고 있는 사람이 적지않다.

③ 폐암의 병발

폐암이 폐결핵을 앓고 난 환자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으나, 성인에서의 폐결핵이 많은 나라에서는 폐결핵 환자 취급시에 성인에서 많은 폐암환자에 대해서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별진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폐결핵진단은 한두달 진단이 지연되어도 치료에 큰 차질을 빚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폐암은 초진에서 한번 놓치는 경우 2~3개월후 재진시에는 이에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빠른 경과를 밟는 것이 바로 폐암(특히 소세포폐암)이기 때문이다. 대개 성인 폐결핵환자의 3~5%에서 폐암을 병발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어 40대 이후 흡연자에서는 특히 폐암병발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찰할 필요가 있게된다.

④ 「아스페루지루스」등 진균감염

폐결핵을 앓고 난후 특히 잔여공동이 있을 때는 「아스페루지루스」종류의 곰팡이균이 공동안에 번식하는 수가 있어 반복적인 혈담이나 각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잔여공동의 각혈증상은 폐기능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폐결핵치료후, 결핵균은 계속 음성인데 (즉 결핵의 재발은 아닌데) 반복해서 혈담이나 각혈을 나타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가

능성에 대해서 생각해야한다. 즉 ①기관지확장증, ② 폐암의 병발, ③「아스페루지루스」감염증 등이다. 이상 중요 후유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기타의 폐기종등 호흡기능장애, 호흡부전증, 기관지결핵에 의한 기도협착증, 늑막유착증, 흉곽변형등은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기 보다는 병변의 위치와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특정 환자에서 생길 수 있는 후유증과 합병증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환자에서의 발생여부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비정형항산균증이라고 해서 폐기종과 오랜 결핵치료후에 이런 비정형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임상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비정형항산균은 보통 사용하는 항결핵제에는 내성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어서 치료기간이 폐결핵경우보다 길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상 결핵의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는데 이런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첩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의사의 지시하에 치료를 받고 치료를 끝낸 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